

제5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②	⑤	②	②	③
6	7	8	9	10
④	①	④	①	①
11	12	13	14	15
④	②	③	③	①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①
21	22	23	24	25
⑤	②	①	④	⑤
26	27	28	29	30
④	①	⑤	④	②
31	32	33	34	35
⑤	④	④	③	④
36	37	38	39	40
④	⑤	③	②	⑤
41	42	43	44	45
⑤	⑤	③	⑤	①
46	47	48	49	50
③	⑤	②	②	③

01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 ②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 ③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 ④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⑤ 주먹도끼, 찌개 등의 뎨석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정답> ②

'김해의 초대형 고인돌, 무덤으로 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김해 구산동의 무게 350톤 규모의 초대형 고인돌에서 매장 주체부가 발굴되어 무덤으로 확인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고인돌은 그 규모와 출토 유물을 통해서 사유 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가) 시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청동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식을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이때에 이르러 밭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도 행해졌다.

②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사람들이) 산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④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⑤ 주먹도끼, 찌개 등의 뎨석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02 - 고조선(개천절)

2.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한국사 묻고 답하기 조회 수: 12,345

질문 개천절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 ↳ 단군왕검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이 나라를 건국한 것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 ↳ 1909년에 대종교에서 개천일로 이름 짓고 기념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 매년 10월 3일에는 마니산 참성단에서 이 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됩니다.

- ① 백제와 연합하여 금성을 공격하였다.
- ②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 ③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④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 ⑤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벌금 8조가 있었다.

정답> ⑤

'한국사 묻고 답하기'라는 제목 아래 질문으로 '개천절에 대해 알려주세요'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단군왕검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이 나라를 건국한 것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라는 답, '1909년 대종교에서 개천일로 이름 짓고 기념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는 답, '매년 10월 3일에는 마니산 참성단에서 이 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됩니다'는 답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나라'는 고조선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고조선에는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벌금 8조가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의 왕경인) 금성을 공격한 나라는 가야이다(400).
- ②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한 나라는 신라이다. 17대 내물마립간(재위 356-402)에서 21대 소지마립간(479-500)까지 약 150년간 사용되었다.
- ③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 ④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한 나라는 백제(국)이다.

03 - 초기 국가, 고구려와 동예

3.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이 있으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이름하여 동맹이라 한다.
- 『삼국지』 동이전 -

(나) 그 나라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가) -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 ② (가) -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③ (나) -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았다.
- ④ (나) -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⑤ (가), (나) -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정답> ②

(가)에 '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이 있으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이름하여 동맹이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가리키는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임을 알 수 있다.

(나)에는 '그 나라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책화'). 이어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가리키는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일명 데릴사위제, 예서제라고도 부른다.

오답 해설>

- ①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한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라) 삼한의 변한이다.
- ③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은 나라는 (동예가 아니라)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초에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영토(고조선 서방 2천여 리)를 빼앗긴 적이 있다.
- ④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린 나라는 (동예가 아니라) 초기 국가, 부여이다.
- ⑤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나 동예가 아니라) 신라이다.

04 -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4.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답 > ②

왼쪽 말풍선에 '삼산관을 쓰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의 이 불상을 가상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나도 그래. 다음 전시실에는 이 불상과 재료만 다를 뿐 모습이 매우 닮은 일본 교토 고류사의 불상이 있다고 해. 그것도 보러 가자'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불상'은 삼국 시대 신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선지 ②에 주어진 반가 사유상은 부처의 머리에 3면이 둥근 산 모양의 보관(寶冠), 즉 삼산관(三山冠)을 쓴, 국보 제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 참고로 부처가 복잡한 보관을 쓴 국보 제78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있다. 또 일본 교토 고류지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현재 일본의 국보 제1호이다(7세기경).

오답 해설 >

① 경주 구황동 금제 여래 입상이다(국보 제80호)이다. 경주 황복사지 삼층 석탑(국보 제37호) 해체 수리 공사 중에 경주 구황동 금제 여래 좌상(국보 제79호)*와 함께 발견되었다. 대좌와 광배도 갖춘 겹꽃잎의 복련대 위에 곳곳이 선 불상으로, 가름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통일) 신라 성덕왕 4년(706)으로 추정.

*심화 제52회 6번 출제

③ 발해의 이불병좌상이다. 석가불(석가여래불)과 다보불(다보여래불)이 만나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불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이다(539, 고구려 안원왕 9).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天佛) 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다(국보 제119호).

⑤ 광주 춘궁리 철불로 고려 초기의 불상이다. 이전까지 석불, 금동불이 주류를 이루다가 고려 초인 10세기 말부터 철불이 유행하였다.

05 - 백제 무령왕의 업적

5.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②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③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④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 ⑤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정답 > ③

'이 동상은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서를 양나라에 보내는 (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또한 동상 앞 석상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한 (가)의 무덤에서 출토된 진묘수 모형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백제의 제25대 왕인 무령왕(재위 501-52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무령왕은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전북)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백제의) 왕은 무왕(재위 600-641, 제30대)이다(639, 무왕 40).

②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백제의) 왕은 성왕(재위 523-554, 제26대)이다(538, 성왕 16).

④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재위 346-375, 제13대)이다(371, 근초고왕 26).

⑤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백제의) 왕은 침류왕(재위 384-385, 제15대)이다(384, 침류왕 원년).

06 - 고운 최치원

6.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를 저술하였다.
- ②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였다.
- ③ 한자의 음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 ④ 신라 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상탑기를 남겼다.
- ⑤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심문화쟁론을 지었다.

정답> ④
 '대한민국 방방곡곡 - 함양 상림'이라는 제목 아래 '이번에 소개할 곳은 함양 상림입니다. 이 숲은 당에서 귀국한 (가)이/가 천령군(현 함양군) 태수로 부임하였을 때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하였다고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본 (가)은/는 개혁 방안을 담은 시무책 10여 조를 진성 여왕에게 올렸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고운 최치원(857~?)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894. 진성 여왕 8). 최치원은 신라 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상탑기(海印寺妙吉祥塔記)를 남겼다. 여기에는 (통일) 신라 말 진성 여왕 9년인 895년에 발생한 초적(草賊)의 약탈과 전란에서 불교 사원을 지키다 희생된 승려들의 원혼을 추모하기 위해 삼층 석탑(길상탑)을 세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 인왕경소 등을 저술한 인물은 신라의 고승 원측(613~696)이다. 원측은 중국의 삼장법사 현장(602~664)에게서 유식학(唯識學)을 배운 후 자신만의 독자적인 유식 사상 체계를 수립하였다(중국에서 활동).
 ②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淸放仁問表)*,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 등을 작성한 인물은 강수(?~692)이다.
 *태종 무열왕의 아들 김인문(629~694)을 보내줄 것을 청하는 글
 ③ 한자의 음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은 설총(655~?)이다. 원효의 아들이기도 하다.
 ⑤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심문화쟁론을 지은 인물은 신라의 고승 화쟁국사 원효(617~686)이다.

07 -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7.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백제의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이때 도독인 이찬 품석과 사지(舍知) 죽죽, 용석 등이 죽었다.
 (나) 신라와 당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하여 소부리 별판으로 나아갔다. 소정방이 꺼리는 바가 있어 전진하지 않자 김유신이 그를 달래서 두 나라의 군사가 용감하게 네 길로 일제히 펼쳐 일어났다.
 (다) 흑치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자가 3만여 명이였다. …… 흑치상지가 별부장 사타상여를 데리고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복신과 호응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①
 (가)에 '백제의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이때 도독인 이찬 품석과 사지(舍知) 죽죽, 용석 등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윤충(?~?)의 (신라) 대야성 함락은 백제 의자왕 2년인 642년의 일이다.
 (나)에는 '신라와 당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하여 소부리 별판으로 나아갔다. 소정방이 꺼리는 바가 있어 전진하지 않자 김유신이 그를 달래서 두 나라의 군사가 용감하게 네 길로 일제히 펼쳐 일어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도성[사비성]을 포위 공격한 것은 660년의 일이다.
 (다)에는 '흑치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자가 3만여 명이였다. …… 흑치상지가 별부장 사타상여를 데리고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복신과 호응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달솔) 흑치상지(630?~689)가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한 것은 660년 백제 멸망 직후의 일이다. 임존성(오늘날 충남 예산 대흥)을 거점으로 하여 3만 명의 병력을 수습하고, 당군을 격퇴하면서 2백여 성을 회복하였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다)'가 된다.

08 - 신라 신문왕 대의 사실

8.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열주를 나누어 청주(靑州)를 두니 처음으로 9주가 되었다. 대아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
- 서원소경을 설치하고 아찬 원태를 사신(仕臣)으로 삼았다. 남원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주민들을 옮겨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 ① 금관가야가 멸망하였다.
- ②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③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설치되었다.
- ④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 ⑤ 인재 등용을 위한 독서삼품과가 실시되었다.

정답> ④

위의 사료에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열주를 나누어 청주(靑州)를 두니 처음으로 9주가 되었다. 대아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완산주를 설치하고 청주를 두어 처음으로 9주가 되었다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는 (통일) 신라 신문왕 대의 지방 행정 구역 정비(9주* 5소경)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685, 신문왕 5).

*9주의 명칭이 '한주', '삭주', '명주' 이렇게 한자식으로 개칭된 것은 경덕왕 때(재위 742-765, 제35대)의 일이다.

아래의 사료에는 '서원소경을 설치하고 아찬 원태를 사신(仕臣)으로 삼았다. 남원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주민을 옮겨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서원소경(지금의 청주)과 남원소경(지금의 남원)을 설치하고, 557년(진흥왕 18)에 설치되었던 국원소경(지금의 충주)을 중원소경으로 개칭하여 마침내 5소경으로 정비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5년인 685년의 일이다. 이를 통해 주어진 두 자료는 모두 (통일) 신라 신문왕(재위 681-692, 제31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된 것은 모두 신문왕 대의 일이다 [각 687(신문왕 7)/689(신문왕 9)].

오답 해설>

- ① 금관가야가 멸망한 것은 532년(신라 법흥왕 19)의 일이다(신라에 병합).
- ②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
- ③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稟主)가 설치된 것은 신라 진흥왕 26년인 565년의 일이다. 품주는 이후 설치되는 집사부와 창부(倉部)의 전신으로, 진덕 여왕 5년인 651년까지 존속하였다.
- ⑤ 인재 등용을 위한 독서삼품과가 실시된 것은 (통일)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

09 - 발해

9.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그 나라의] 관제에는 선조성이 있는데, 좌상·좌평장사·시중·좌상시·간의가 소속되어 있다. 중대성에는 우상·우평장사·내사·조고사인이 소속되어 있다. 정당성에는 대내상 1명을 좌·우상의 위에 두었고, 좌·우사정 각 1명을 좌·우평장사의 아래에 배치하였다. - 「신당서」 -

- ①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 ②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 ③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 ④ 개국,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정답> ①

'[그 나라의] 관제에는 선조성이 있는데, 좌상·좌평장사·시중·좌상시·간의가 소속되어 있다. 중대성에는 우상·우평장사·내사·조고사인이 소속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정당성에는 대내상 1명을 좌·우상의 위에 두었고, 좌·우사정 각 1명을 좌·우평장사의 아래에 배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제도는 발해의 중앙 제도[중앙 관제]임을 알 수 있다.

발해는 교육 기관[국립 대학]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오답 해설>

- ②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국가는 고구려이다(400, 고구려 광개토 대왕 10).
- ③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춘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685, 신문왕 5).
- ④ 개국,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국가는 신라이다(6세기 진흥왕 대)
-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국가는 백제이다(부여씨→고구려 동명왕 계통). 왕비족으로 진씨와 해씨가 있었고, 귀족으로 사씨(사택씨), 연씨, 국씨, 목씨, 백씨, 협씨가 있었다.

10 - 견훤(후백제)

1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다.
- ② 귀순한 김순식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였다.
- ③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 ④ 청해진을 근거지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⑤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치나, 서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정답> ①

'연호 정개(正開)가 새겨진 편운화상 승탑'이라는 제목 아래 '전북 남원 실상사 조계암터에 있는 이 승탑에는 '정개 10년 경오(正開十年庚午)가 새겨져 있어 건립 연도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정개는 백제의 원한을 풀겠다고 선언하며 완산주에 나라를 세운 (가)이/가 사용한 연호*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900년에 완산주(지금의 전북 전주)에서 후백제를 세운 견훤(867~936)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연호(年號)란 중국에서 비롯된 군주 국가의 기년법(紀年法)(과거의 어떤 해를 기점으로 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군주의 치세(治世)에 붙이는 칭호이다. 원호(元號),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하며, 중국 한(漢) 무제(武帝) 때의 건원(建元)이 최초의 연호이다. 원칙적으로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호가 있다 함은 그 나라의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견훤은 927년 공산(지금의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왕건이 이끄는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다.

오답 해설>

- ② 귀순한 김순식(?~?)에게 왕씨 성을 하사(따라서 '왕순식'이 됨)한 인물은 고려 태조 왕건(재위 918-943)이다(922, 태조 5).
- ③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한 인물은 충목왕(재위 1344-1348, 제29대)이다(1347, 충목왕 3). 하지만 부원 세력들의 반발로 본격적 활동은 3개월 만에 와해되고, 정치도감도 결국 2년 뒤인 1349년(충정왕 원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또 사실 정치도감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원 혜종(재위 1333-1368, 제15대)의 명령 때문이었다.
- ④ 청해진을 근거지로 해상 무역을 전개한 인물은 장보고(?~846)이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 ⑤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치나, 서사 등의 관원을 둔 인물은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918)이다(904).

11 - 동북 9성의 반환

11.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행영병마별감 승선 최홍정과 병마사 이부상서 문관이 여진 추장 거위이 등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9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마땅히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하늘에 대해 맹세하라."라고 하였다. 추장 등은 함주 성문의 밖에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기를, "지금 이후 대대손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우리 나라[蕃土]는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최홍정 등은 길주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9성의 전투 장비와 군량을 내지(內地)로 들여왔다.

- 『고려사』 -

947	1019	1044	1104	1126	1174
(가)	(나)	(다)	(라)	(마)	
광군사 설치	귀주 대첩	천리장성 완공	별무반 편성	이자겸의 난	조위총의 난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행영병마별감 승선 최홍정과 병마사 이부상서 문관이 여진 추장 거위이 등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9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마땅히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하늘에 대해 맹세하라'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추장 등은 함주 성문의 밖에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기를, 지금 이후 대대손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우리 나라[蕃土]는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최홍정 등은 길주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9성의 전투 장비와 군량을 내지(內地)로 들여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9성의 반환'과 '여진 추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고려의 '동북 9성 반환'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1109, 예종 4).

주어진 연표에서는 별무반 편성(1104, 숙종 9)과 이자겸의 난(1126, 인종 4) 사이의 시기인 '(라) 시기'에 해당한다.

12 - 고려 광종 시기의 사실

12.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12목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 ②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 ③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이 간행되었다.
- ④ 안우, 이방실 등이 흉건적을 격파하였다.
- ⑤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정답> ②

'안성 망이산성에서 '준풍 4년(峻豐四年)'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습니다.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던 이 왕은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개경을 황도로 명명하는 등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왕'은 고려의 제4대 왕인 광종(재위 949-975)임을 알 수 있다.

*고려 광종은 즉위년(949)에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하였고, 광종 11년인 960년에 이르러 '준풍(峻豐)'이라는 연호로 바뀌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준풍 4년은 963년임을 알 수 있다.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된 것은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12목에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성종 2년인 983년의 일이다.
- ③ (최씨 무신 정권 집권자인 최우에 의해)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이 간행된 것은 고종 23년인 1236년에서 고종 38년인 1251년까지의 일이다. 1236년에 피난 도읍지인 강화에 대장도감 본사를 두고, 진주(晋州) 관내의 남해현에 본사를 두어 판각을 분담시켰다.
- ④ 안우(?~1362), 이방실(1298~1362) 등이 흉건적을 격파한 것은 흉건적의 제2차 침입 시의 일이다(1361, 공민왕 10). 흉건적이 침략한 것은 두 차례로 제1차 침입은 고려 공민왕 8년인 1359년이고, 제2차 침입은 공민왕 10년인 1361년에 일어났다. 참고로 이방실은 흉건적의 1차 침입 시에도 격파에 기여하였고, 공민왕은 2차 침입 시 복주(지금의 경북 안동)까지 피난하였다.
- ⑤ 신돈(?~1371)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된 것은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

13 - 고려 시대의 경제(경시서)

13.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왕이 명을 내리기를, "양계와 5도의 진병법석(鎭兵法席)*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 무슨 복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중사(中使)를 파견하여 내고(內庫)의 은병 300개를 내어서 여러 도에 나누어 주었다.

*진병법석: 병화(兵禍)를 물리치기 위해 거행한 불교 의식

- ① 백동화를 주조하는 전환국의 기술자
- ② 신해통공 시행 소식에 기뻐하는 난전 상인
- ③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 ④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 ⑤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

정답> ③

'왕이 명을 내리기를, 양계와 5도의 진병법석(鎭兵法席)*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것은 부처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 무슨 복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중사(中使)를 파견하여 내고(內庫)의 은병 300개를 내어서 여러 도에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진병법석: 병화(兵禍)를 물리치기 위해 거행한 불교 의식

'양계'와 '5도'라는 명칭에서 주어진 자료는 고려 시대(지방 행정 조직)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개경)의 시전을 감독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목종 대(재위 997-1009, 제7대)로 추정된다(경시서 자체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러다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이르러 경시서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이후 경시서는 조선 초에도 계속 존속되다가 세조 12년(1466)에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백동화를 주조하는 전환국이 설치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
- ② 신해통공이 시행된 것은 조선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 신해통공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 ④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가 등장한 것도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14 - 삼별초의 대몽 항쟁

1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지원(至元) 7년, 원종이 강화에서 송경(松京)으로 환도할 적에 장군 홍문계 등이 나라를 그르친 권신 임유무를 죽이고 왕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권신의 가병, 신의군 등의 부대가 승화후(承化侯)를 옹립하고 반역을 도모하면서, 미처 강화를 떠나지 못한 신료와 군사들을 강제로 이끌고 남쪽으로 향해하여 가니 배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 ①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 ② 묘청이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 ③ 김방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
- ④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 ⑤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정답> ③

'지원(至元) 7년*, 원종이 강화에서 송경(松京)으로 환도할 적에 장군 홍문계 등이 나라를 그르친 권신 임유무를 죽이고 왕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권신의 가병, 신의군 등의 부대가 승화후(承化侯)를 옹립하고 반역을 도모하면서, 미처 강화를 떠나지 못한 신료와 군사들을 강제로 이끌고 남쪽으로 향해하여 가니 배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원종이 송경[개경]으로 환도'하고 '삼별초'가 개경으로의 환도에 저항하는 표현을 통하여 주어진 자료는 원종 11년인 1270년의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원 세조 쿠빌라이 때(재위 1264-1294) 사용한 연호로 지원 7년은 1270년에 해당한다. 이후 원 혜종 때도 같은 명칭의 연호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 구분하기 위하여 보통 '후지원(後至元)'이라고 부른다(1335~1341년 6년간 사용).

김방경(1212~1300)의 군대가 탐라(지금의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진압한 것은 고려 원종 14년인 1273년 6월의 일이다. 삼별초는 1270년 6월에서 1271년 5월까지 진도에서, 이어 1271년 5월에서 1273년 6월까지 제주도에 항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김윤후(?~?)가 처인성(지금의 경기도 용인)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것은 몽골의 제2차 침입 시의 일이다(1232, 고려 고종 19).
- ② 묘청(?~1135)이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한 것은 고려 인종 대의 일이다(1135, 고려 인종 13, 서경 천도 운동).
- ④ 최충헌(1149~1219)이 (이의민을 축출하고 집권한 직후)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한 것은 고려 명종 26년인 1196년의 일이다.
- ⑤ 경대승(1154~1183)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고려 명종 9년인 1179년의 일이다. 사병 집단인 도방을 처음 설치하였다.

15 - 안동 봉정사 극락전

15.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안동 봉정사 극락전
- ②  보은 법주사 팔상전
- ③  구례 화엄사 각황전
- ④  예산 수덕사 대웅전
- 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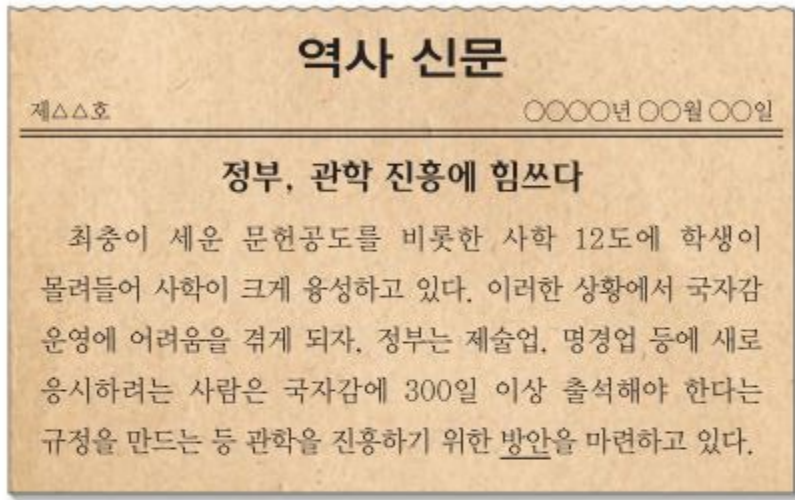
맨왼쪽의 말풍선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공민왕 때 지붕을 크게 수리했다는 상량문의 기록을 통해 건축 연대를 추정할 수 있지'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이야'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대화 속 문화유산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국보 제 15호로 13세기 초 내지 중반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오답 해설>

- ②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인 17세기의 건축물로,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 5층탑이다(국보 제55호). 정유재란 때 불에 탔는데, 인조 4년(1626)에 다시 축조하였다. 벽의 사방에 각 면 2개씩 모두 8개의 변상도(變相圖)*가 그려져 있어 팔상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변상도: 일종의 종교화로, 불교 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 ③ 구례 화엄사 각황전은 17세기의 건축물이다(국보 제67호).
- ④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충렬왕 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다(1308, 충렬왕 34, 국보 제49호). 참고로 수덕사는 삼국 시대 백제 말인 7세기 중엽에 창건되었다.
- 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 시대의 목조 건물이다(국보 제18호). 배흘림기둥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건물 내부에는 국보 제45호인 소조(아미타)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16 - 고려의 관학 진흥책

16. 밑줄 그은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현고를 두어 장학 기금을 마련하였다.
- ② 서원을 세워 후진 양성과 선현 제향에 힘썼다.
- ③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 ④ 만권당을 설립하여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 ⑤ 경당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정답> ①

'정부, 관학 진흥에 힘쓰다'는 제목 아래 '최종이 세운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에 학생이 몰려들어 사학이 크게 융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는 제술업, 명경업 등에 새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감에 300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등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로써 고려 시대의 관학 진흥책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일종의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두어 장학 기금을 마련한 것은 고려 예종 14년인 111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서원을 세워 후진 양성과 선현 제향에 힘쓴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조선 중종 38년인 1543년에 세워졌다.
- ③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한 것은 조선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 ④ (일종의 독서당인) 만권당을 설립하여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한 것은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의 일이다. 상왕이 된 충선왕이 원의 연경[지금의 북경]에 만권당을 세우고 익재[역옹] 이 제현(1287~1367)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을 불렀다.
- ⑤ (지방 교육 기관인) 경당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친 것은 고구려 장수왕 15년인 427년 이후의 일이다(평양 천도 이후).

17 - 조선 태종 시기의 사실

1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였다.
- ②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두었다.
- ③ 어영청을 중심으로 복벌을 추진하였다.
- ④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 ⑤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정답> ④

'이것은 마천목을 좌명공신에 봉한다는 녹권입니다. 마천목은 제2차 왕자의 난 당시 회안공 이방간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가)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섰습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가)은/는 마천목을 3등 공신으로 책봉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2차 왕자의 난'*이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의 제3대 국왕인 태종 이방원(1367~1422, 재위 1400-1418)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태조 7년인 1398년 8월에 일어난 것이 첫 번째이고(제1차 왕자의 난, 방원의 난, 무인정사의 난, 또는 정도전의 난이라고 함), 1400년 1월에 일어난 것이 두 번째이다(제2차 왕자의 난, 방간의 난, 또는 박포의 난이라고 함).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를 (처음) 실시하였다(1414, 태종 14). 참고로 세조 원년인 1455년에 6조 직계제가 다시 시행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한 것은 세조 12년인 1466년의 일이다(직전법). 직전법에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② 최무선(1325~1395)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둔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 ③ 어영청을 중심으로 복벌을 추진한 것은 조선 효종 대(재위 1649-1659, 제17대)의 일이다. 어영청이 설치된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이다.
- ⑤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편찬한 것은 성종 24년인 1493년의 일이다.

18 - 무오사화

18.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김종직의 자는 계온이고 호는 점필재이며, 김숙자의 아들로 선산 사람이다. …… 효행이 있고 문장이 고결하여 당시 유학자의 으뜸으로 추앙받았는데, 후학들에게 학문을 장려하여 많은 사람이 학문을 성취하였다. 후학 중에 김굉필과 정여창 같은 이는 도학으로 명성이 있었고, 김일손, 유호인 등은 문장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 밖에도 명성을 얻은 이가 매우 많았다. 연산군 때 유자광, 이극돈 등이 주도한 (가)이/가 일어났을 당시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화가 그의 무덤까지 미치어 부관참시를 당하였다.

- ① 계유정난의 배경이 되었다.
- ②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 ③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 ④ 윤임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②

'김종직의 자는 계온이고 호는 점필재이며, 김숙자의 아들로 선산 사람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효행이 있고 문장이 고결하여 당시 유학자의 으뜸으로 추앙받았는데, 후학들에게 학문을 장려하여 많은 사람이 학문을 성취하였다. 후학 중에 김굉필과 정여창 같은 이는 도학으로 명성이 있었고, 김일손, 유호인 등은 문장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 밖에도 명성을 얻은 이가 매우 많았다. 연산군 때 유자광, 이극돈 등이 주도한 (가)이/가 일어났을 당시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화가 그의 무덤까지 미치어 부관참시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종직', '김일손', '유자광', '이극돈' 등의 인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발생한 '무오사화'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무오사화는 김종직(1431~1492)이 작성한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오답 해설>

- ① 계유정난이 일어난 것은 단종 원년인 1453년의 일이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③ (중종에게) 반정 공신의 위훈(僞勳) 삭제를 주장한 이는 정암 조광조(1482~1519)이다(1519, 중종 14). 기묘사화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대운인) 윤임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을사사화 때의 일이다(1545, 명종 원년).
- 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된 것은 선조 24년(1591)에 발생한 세자 책봉 문제(건저의 문제) 때문이다. 서인(송강 정철이 영수)에 대한 논죄 여부를 두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뉘었다.

19 -유향소(향청)

19.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각 지역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며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을 경재소라고 합니다. 경재소에서는 고향에 사는 유력자 중에서 강직하고 명석한 자들을 선택하여 (가)에 두고 향리의 범법 행위를 규찰하고 풍속을 유지하였습니다.

○ (가)을/를 설치하고 향임을 둔 것은 말은 바를 중히 여긴 것이다.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늘 바뀌니, 백성의 일에 뜻을 둔다 하여도 먼 곳까지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 그 지역의 기강을 말도록 하여 수령의 눈과 귀로 삼았다.

- ① 주세붕이 처음 설립하였다.
- ②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 ③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였다.
- ④ 대성전을 세워 성현에 제사를 지냈다.
- ⑤ 흥선 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정답> ②

위의 자료에 '각 지역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며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을 경재소라고 합니다. 경재소에서는 고향에 사는 유력자 중에서 강직하고 명석한 자들을 선택하여 (가)에 두고 향리의 범법 행위를 규찰하고 풍속을 유지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가)을/를 설치하고 향임을 둔 것은 말은 바를 중히 여긴 것이다.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늘 바뀌니, 백성의 일에 뜻을 둔다 하여도 먼 곳까지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 그 지역의 기강을 말도록 하여 수령의 눈과 귀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유향소(향청)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유향소에서는 좌수(유향소의 장)와 별감(유향소의 차석)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풍기 군수) 주세붕(1495~1554)이 처음 설립한 기구는 서원이다[백운동 서원. 1543(조선 중종 38)].
- ③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한 기구는 지방의 향교이다.
- ④ 대성전을 세워 성현에 제사를 지낸 기구는 문묘(文廟)로,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 설치되었다. 대성전은 문묘의 정전, 즉 공자의 위패를 모신 전각이다.
- ⑤ 흥선 대원군(1820~1898)에 의해 대부분 철폐된 기구는 서원이다(1864, 고종 원년). 600여 곳의 서원을 47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철폐하였다.

20 -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

20.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 주세요.

세조 때 축조하였으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이 탑의 각 면에는 부처, 보살, 천인상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탑 근처에 살던 박지원, 이덕무 등이 서로 교류하여 이들을 백담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답> ①
 '(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 주세요'라는 요청에 대해, '세조 때 축조하였으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이 탑의 각 면에는 부처, 보살, 천인상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탑 근처에 살던 박지원, 이덕무 등이 서로 교류하여 이들을 백담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라는 세 답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문화유산은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임을 알 수 있다(1467, 세조 13).

오답 해설>
 ②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639, 무왕 40). 주어진 이미지는 2018년 6월에 복원된 것이다.
 ③ 통일 신라 시대에 조성된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다(751, 경덕왕 10).
 ④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이다(7세기).
 ⑤ 발해의 영광탑이다.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 서북쪽 탑산에 위치해 있다. 8~10세기에 건립된 발해 시대의 누각식 전탑(모전 석탑)으로 창바이 영광탑 또는 발해 전탑으로도 불린다. 1908년 장평타이라는 청의 관리가 이 탑에 대해 공자 사당의 영광전(靈光殿)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의연하게 남아 있다고 평한 뒤로 영광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1 - 병자호란

21.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 ②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 ③ 광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 ④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하였다.
- ⑤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정답> ⑤
 '이 비각에는 홍명구 총렬비와 유림 대첩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홍명구와 유림은 이 전쟁 당시 남한산성에 피란해 있던 국왕을 구하기 위해 근왕병을 이끌고 김화에서 적을 크게 물리쳤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남한산성에 피란해 있던 국왕'이라는 표현에서 밑줄 그은 '이 전쟁'은 병자호란임을 알 수 있다 [1636.12(인조 14)~1637.1(인조 15)].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당시 전라도 병마절도사였던 김준룡(1586~1642)은 근왕병을 이끌고 적에게 포위당한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던 중 용인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 이때 김준룡은 청의 장수 공경(孔耿)의 부대와 싸워 청 태조의 사위 백양고라(白羊高羅)를 포함한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오답 해설>
 ①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8월의 일이다.
 ②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된 것은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 (1866.10).
 ③ (홍의 장군) 광재우(1552~1617)가 (경남)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의 일이다.
 ④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한 것은 사르후 전투*이다 (1619.3, 광해군 11).

*사르후 전투: 조·명 연합군이 후금(청)의 군대가 만주의 사르후에서 맞서 싸운 전투로 조·명 연합군이 대패하였다. 이후 명청 교체의 분수령이 된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

22 - 기사환국

2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건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하였는데, 문안(文案)을 보니 준기를 산속 정자에 숨긴 사실이 지금 비로소 드러났으니, 알고서도 엄호한 정황이 분명하여 감출 수가 없었다. 그저께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나) 임금이 명하기를, “국운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중전이 복위하였으니,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하는 도리이다.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 주도록 하라. 다만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하는 것은 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①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②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 ③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 ④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 ⑤ 봉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세워졌다.

정답> ②

(가)에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건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하였는데, 문안(文案)*을 보니 준기를 산속 정자에 숨긴 사실이 지금 비로소 드러났으니, 알고서도 엄호한 정황이 분명하여 감출 수가 없었다. 그저께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도 이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목재 허적(1610~1680)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주어진 자료는 경신환국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680, 숙종 6).

*문안: 문서나 문장의 초안

(나)에는 '임금이 명하기를, 국운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중전이 복위하였으니,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하는 도리이다.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 주도록 하라. 다만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하는 것은 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전이 복위하고 '장씨'에게 희빈을 다시 내려 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주어진 자료는 갑술환국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694, 숙종 20).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된 것은 기사환국 때의 일이다(1689, 숙종 15).

오답 해설>

- ①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명종 2년인 1547년의 일이다. 당시 외척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소윤) 세력이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 붙여진 벽서를 빌미로 을사사화(1545) 이후 잔존한 반대파 인물들(대운 세력과 사림계)을 재차 숙청한 사건이며, 정미사화라고도 한다. 후일 소윤 일파 몰락 후 벽서 사건 자체가 무고임이 공인되었다.
- ③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것은 두 차례이다[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 ④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의 일이다. 1591년까지 정여립과 연루된 다수의 동인이 희생되었다.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 ⑤ 봉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성균관 앞 반수교 옆에) 세워진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

23 - 대동법의 영향

23. 밑줄 그은 '이 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 ②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었다.
- ③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 ④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 ⑤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

정답> ①

한국사 쟁점 토론의 주제로 '공납의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제시되어 있다. 왼쪽 말풍선에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물을 현물 대신 쌀, 배 등으로 납부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는 농민의 말[주장]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물을 납부하게 되어 토지가 많은 지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 납니다'는 양반 지주의 말[반박]이 나와 있다. '방납의 폐단'으로 백성들의 공납 부담이 커져 '공물을 현물 대신 쌀, 배 등으로 납부하는 법'은 곧 17세기에 전국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된 대동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608(광해군 즉위년)~1708(숙종 34), 공납의 전세화, 공납의 전결화]. 대동법의 시행으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된 것은 균역법 시행 때문이다(1750, 영조 26).
- ③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연분9등법]한 것은 공법 시행 시이다(1444, 세종 26).
- ④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된 것은 고종 8년인 1871년의 일이다.
- ⑤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1결당 쌀 2두]이 부과된 것은 균역법 시행 때문이다.

24 - 조선 영조, 정조 대의 사실

24. (가), (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조선의 법전

■ 속대전

(가) 때 경국대전을 개정 및 증보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경국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신지 않고, 기존 규정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조목만을 수록하였다.

■ 대전통편

(나) 때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경국대전의 내용에 원(原), 속대전의 내용에 속(續), 새로 추가된 내용에 증(增)을 붙여 구분하였다.

- ① (가) -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② (가) -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증건하였다.
- ③ (나) - 이종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④ (나) -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⑤ (가), (나) -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정답> ④
 '조선의 법전'이라는 제목 아래 속대전과 대전통편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어 속대전은 '(가) 때 경국대전을 개정 및 증보하여 편찬한 법전으로, 경국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신지 않고, 기존 규정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조목만을 수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한 것은 조선 영조 22년인 1746년의 일이다. 또 대전통편은 '(나) 때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으로, 경국대전의 내용에 원(原), 속대전의 내용에 속(續), 새로 추가된 내용에 증(增)을 붙여 구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통편이 편찬된 것은 조선 정조 9년인 1785년의 일이다.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한 것은 조선 정조 17년인 1793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청과의 국경[경계]을 정한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것은 조선 숙종 38년인 1712년의 일이다.
 ②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증건한 것은 고종 대의 일이다(고종 2년인 1865년에서 고종 5년인 1868년까지).
 ③ 이종무(1360~1425)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한 것은 조선 세종 원년인 1419년의 일이다. 우리나라가 대마도를 정벌한 것은 여러 번으로, 이종무에 의한 것과 고려 창왕 원년인 1389년 박위(?~1398)에 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⑤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한 것은 효종 대의 일이다[효종 5년인 1654년(변급), 효종 9년인 1658년(신류)].

25 - 성호 이익(성호사설)

2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책은 (가)이/가 학문과 사물의 이치를 논한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모아 엮은 성호사설입니다. (가)은/는 노비 제도의 개혁, 서얼 차별 폐지 등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성호사설

- ①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 ②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 ③ 동호문답에서 수취 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하였다.
- ④ 가례집람을 지어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 ⑤ 광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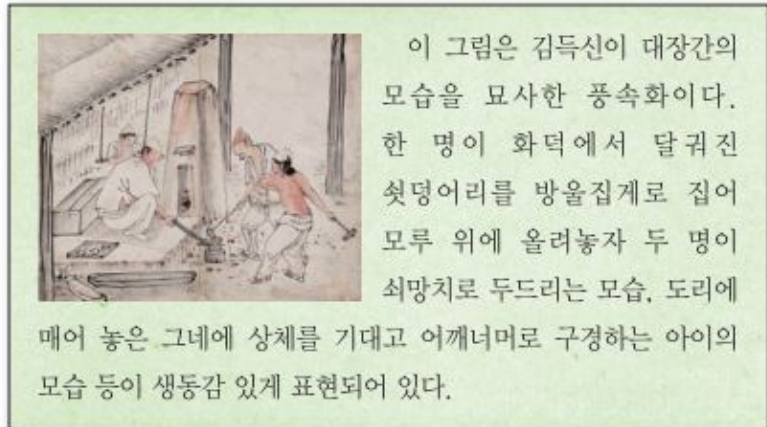
정답> ⑤
 '이 책은 (가)이/가 학문과 사물의 이치를 논한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모아 엮은 성호사설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은/는 노비 제도의 개혁, 서얼 차별 폐지 등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1681~1763)임을 알 수 있다.

이익은 광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이벽(1754~1785)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인 대표적인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의 둘째 형인 정약전(1758~1816)과 셋째 형인 정약종(1760~1801)을 들 수 있다.
 ②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인물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이다(1852, 철종 3).
 ③ 동호문답에서 수취 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한 인물은 율곡 이이(1536~1584)이다(1569, 선조 2). 참고로 이이는 그외 성학집요, 만언봉사, 격몽요결 등을 저술하였다.
 ④ 가례집람을 지어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인물은 서인의 영수이자 예학의 대가였던 사계 김장생(1548~1631)이다 [1685(숙종 11) 간행].

26 - 조선 후기의 문화

26.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중인들이 시사(詩社)를 조직하였다.
- ②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이 공연되었다.
- ③ 춘향가, 흥보가 등의 판소리가 유행하였다.
- ④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 ⑤ 흥길동전, 박씨전 등의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

정답> ④

'이 그림은 김득신이 대장간의 모습을 묘사한 풍속화이다. 한 명이 화덕에서 달궀진 쇳덩어리를 방울집계로 집어 모루 위에 올려놓자 두 명이 쇳망치로 두드리는 모습, 도리에 매어 놓은 그네에 상체를 기대고 어깨너머로 구경하는 아이의 모습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그림은 조선 후기의 화원(화가) 김득신(1754~1822)의 야장단련(금재풍속화첩)이라는 작품이다(풍속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고려 후기). 참고로 직지심체요절은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오답 해설>

- ① 중인들이 시사(詩社)를 조직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②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이 공연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춘향가, 흥보가 등의 판소리가 {장시에서} 유행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흥길동전, 박씨전 등의 한글 소설이 널리 읽힌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27 - 도원 김홍집

2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총리대신으로 갑오개혁을 주도하였다.
- ②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 ③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를 저술하였다.
- ④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겼다.
- ⑤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끄는 영선사로 청에 파견되었다.

정답> ①

'우리 역사 속 인물 연대기'라는 제목 아래 근대에 '박규수, 오경석, (가)'가 제시 되어 있다. 이어 (가)는 '1867년에 문과에 급제' 하고, '1880년에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 국내에 조선책략을 가져왔'으며, '1884년 한성 조약 체결 당시 전권대신을 맡'았다. 또 '1896년 아관 파천 후 성난 군중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도원 김홍집(1842~1896)임을 알 수 있다.

김홍집은 갑오개혁 당시 총리대신으로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오답 해설>

- ②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1872~1909)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인물은 우강 양기탁(1871~1938)이다(1904.7). 대한매일신보는 강경한 항일 논조를 펼쳤다.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 선언'을 게재하였고,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 ③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세계 지리서]를 저술한 인물은 해강 최한기(1803~1877)이다(1857, 철종 8). 이 책에서 최한기는 우주 현상과 지리, 문화 현상을 상술하였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함께 주장하였고, 자전과 공전설이 코페르니쿠스의 것임을 밝혔다.
- ④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긴 인물은 위당 신현(1810~1884)이다.
- ⑤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끄는 영선사로 청에 파견된 인물은 운건 개화파인 운양 김윤식(1835~1922)이다. 고종 18년인 1881년 9월 청에 영선사로 파견되었다(~1882.11).

28 - 진주 농민 봉기

28. 밑줄 그은 '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1점]

경상 감사 이돈영이 진주의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인명을 살상하였다고 보고하니, 왕이 하교하였다. "난민들의 행동이 극에 달했으니, 만약 평시에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달랬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대신들은 의논하여 조치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

- ①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를 두었다.
- ②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 ③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 ④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 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정답> ⑤

'경상 감사 이돈영이 진주의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켜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인명을 살상하였다고 보고하니, 왕이 하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의 하교로 '난민들의 행동이 극에 달했으니, 만약 평시에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달랬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대신들은 의논하여 조치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상 감사 이돈영', '진주의 백성들', '경상우병사 백낙신'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변란'은 조선 철종 13년인 1862년 2월에 일어난 진주 농민 봉기[임술 농민 봉기]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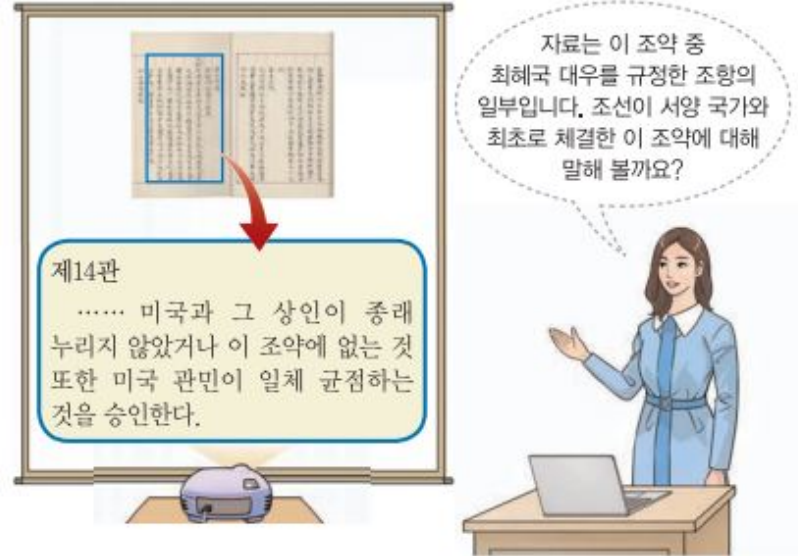
조선 정부는 봉기가 일어나자 경상도 안핵사로 환재 박규수(1807~1876)를 파견하였으며,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참고로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1737~1805)의 손자이다.

오답 해설>

- ①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를 둔 것은 고종 36년인 1899년 6월의 일이다.
- ②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를 해방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
- ③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1월의 일이다(제2차 갑오개혁, 1894.12~1895.8).
- ④ [경복궁 중건(1865~1868)에 따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한 것은 흥선 대원군 집권 초인 1866년(고종 3)의 일이다(~1867).

29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29.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병인양요 발생의 배경이 되었어요.
- ②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어요.
- ③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 ④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 ⑤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답> ④

'자료는 이 조약 중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의 일부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이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이 조약에 대해 말해 볼까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자료에는 '14관 미국과 그 상인이 종래 누리지 않았거나 이 조약에 없는 것 또한 미국 관민이 일체 균점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에서 말하는 조약은 조선 고종 19년인 1882년 5월에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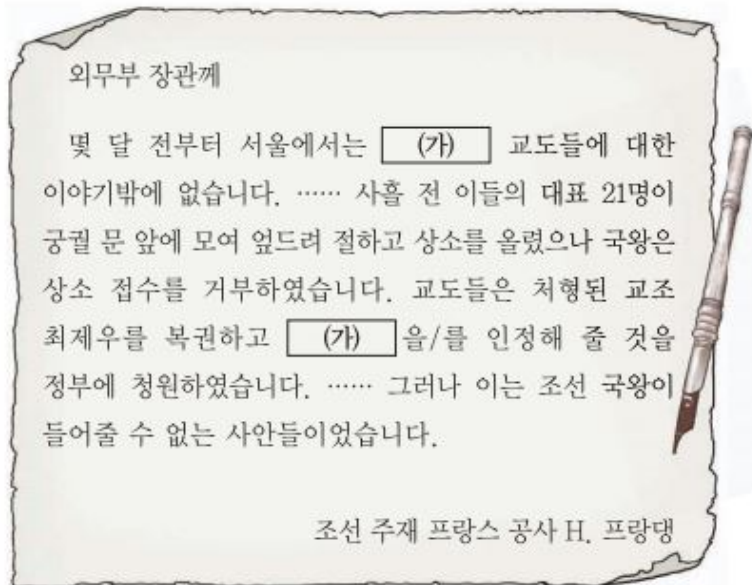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조에는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거중 조정이란 국제기구, 국가, 개인 따위의 제3자가 국제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 사이에 끼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말한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조에 규정되었으며, 고종은 이후 이 조항에 기대어 미국에게 일본의 국권 침탈 행위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병인양요 발생의 배경이 된 것은 병인박해이다(1866, 고종 3).
- ②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한성 조약이다(1885, 고종 22).
- ③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온 조약은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이다(1905.11).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이듬해인 1906년 2월의 일이다.
- ⑤ 메가타(1853~1926)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된 조약은 제1차 한일 협약이다(1904.8).

30 - 동학

30.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 ② 포접제를 활용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
- ③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④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⑤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정답> ②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 H. 프랑댕'이 자국의 '외무부 장관께' 올리는 글이다. '몇 달 전부터 서울에서는 (가)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사흘 전 이들의 대표 21명이 궁궐 문 앞에 모여 엎드려 절하고 상소를 올렸으나 국왕은 상소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교도들은 처형된 교조 최제우를 복권하고 (가)을/를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조선 국왕이 들어줄 수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는 동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교조 최제우(1824~1864)에 대한 신원 운동 중 하나인 서울 복합 상소가 있었던 것은 고종 30년인 1893년 2월의 일이다.

동학은 포접제를 활용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 여기서 포접제(包接制)란 동학에서 교도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교주인 법헌-포-접의 형태로 조직화되었다. 보통 한 접의 규모는 30~70호 정도였고, 관리 책임자로 접주(接主)를 두었다. 포는 접의 상위 조직으로 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개수의 제한 없이 여러 접을 거느렸다. 각 포의 관리 책임자는 대접주(大接主)로, 1893년 3월 보은 집회 당시 8명의 대접주가 탄생[임명]하였다 한다.

오답 해설>

- ①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주장한 종교는 고려의 불교(조계종)이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노력한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핵심 불교 사상이다.
- ③ 박종빈(1891~1943)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추진한 종교는 원불교이다(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전반).
- ④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종교는 대종교이다(1911.3). 중광단은 대종교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로, 만주의 간도 지역에서 결성되었다.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가 되었다.
- ⑤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은 종교는 천주교이다.

31 - 독립 협회

31.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 ②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하였다.
- ④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 ⑤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정답> ⑤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설을 위해 독립문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독립문은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가)이/가 왕실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세웠습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자리 부근에 있는 독립문은 이번 결정으로 원래 자리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공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독립 협회임을 알 수 있다(1896.7). 참고로 독립문이 세워진 것은 고종 34년이자 광무 원년인 1897년 11월의 일이다.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1898).

오답 해설>

- ①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앞장선 단체는 천도교이다(1906.6).
- ②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 자강회이다(1906.4~1907.8). 대한 자강회는 이 일로 해산당하였다.
- ③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한 단체는 찬양회(贊襄會)이다(1898.9). 찬양회는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운동 단체로, 사실 통문을 먼저 돌린 직후 조직되었다. 양성원(養成院), 순성회(順成會), 찬양회(讚揚會) 등으로도 불렸다. 통문에서 '신체 수족 이목이 남녀간에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자는 병신 모양으로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남자의 절제를 받는가? 여학교를 세워 남녀평등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권 및 정치 참여권을 내용으로 하는 찬양회의 통문은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여학교 설립 운동과 여성의 계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독립 협회가 이끈 만민 공동회의 자유 민권 운동에도 참가하였다.
- ④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11).

32 - 부산의 역사적 사실

32.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1점]

탐구 활동 계획서

○학년 ○반 이름 ○○○

1. 주제: (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조선의 대외 관계

2. 탐구 방법: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

3. 탐구 내용

가. 대일 무역의 거점, 초량 왜관
나. 개항 이후 설정된 조계의 기능
다. 관세 문제로 일어난 두모포 수세 사건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④

'탐구 활동 계획서'라는 제목 아래 주제로 '(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조선의 대외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탐구 방법으로는 문헌 조사와 인터넷 검색 등이, 마지막으로 탐구 내용으로는 '가. 대일 무역의 거점, 초량 왜관, 나. 개항 이후 설정된 조계의 기능, 다. 관세 문제로 일어난 두모포 수세 사건*'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 부산'임을 알 수 있다.

*두모포 수세 사건: 1878년 12월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豆毛浦)**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부산 두모포 (해관) 수세 사건]. 관세 자주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일본군 수병들이 동래부사를 압박하면서 일본인 상인들에게서 수세를 거두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두모포: 조선 시대 기장현 구포(九浦)의 하나로 기장현의 대표적인 포구였으며, 해상으로 출입하는 인적·물적 교통의 요충지이었다. 두모포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상 좌수영 소재 부산진 관할 하에 있었으며, 수군만호(水軍萬戶)[종4품]가 전체를 관리하며 수비하였다.

33 - 위정척사 운동과 면암 최익현의 활동

33.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한국사 주제 발표〉

위정척사 운동과 최익현의 활동

이완용 등의 역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찬 등과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개혁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일본의 간섭하에 추진된 개혁에 반발하여, 이를 주도한 박영효, 서광범 등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가)

(나)

(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나) - (가)

정답> ④

'위정척사 운동과 최익현의 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맨왼쪽 말풍선에 '이완용 등의 역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찬 등과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말이 나와 있다. 1906년 4월의 일이다(1905년의 청토오적소(淸討五賊疏), 1906년의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

가운데 말풍선에는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개혁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말이 나와 있다. 면암 최익현(1833~1906)의 지부복궐척화익소[병자지부<복궐>소(丙子持斧<伏闕>疏)]를 가리킨다(1876.1). 당시 최익현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체결이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전 임진왜란 직전에 지부상소를 올린 중봉 조헌(1544~1592년)의 예를 따라] 도끼를 가지고 광화문 앞에 가 이같이 상소하였다(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1879년에 해배).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일본의 간섭하에 추진된 개혁에 반발하여, 이를 주도한 박영효, 서광범 등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는 말이 나와 있다. 1895년 6월(음력)의 일로, 같은해 3월에 내려진 (을미)변복령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관제와 의제 등을 갑오개혁 이전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다)-(가)'가 된다.

34 - 조일 통상 장정(방곡령)

34.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이달 20일,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수해를 당하여 조만간 여러 곡식의 피해가 클 듯한데, 콩 등은 더욱 심하여 모두 흉작이 될 것이라고 고하고 있으니, 궁핍하여 식량난을 겪을 것이 장차 불을 보듯 흰합니다. 도내(道內)의 쌀과 콩 등의 곡물에 대해서는 내년 가을걷이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삼아 잠정적으로 유출을 금지하여 백성들의 식량 사정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 합니다. 바라건대 통촉하시어 유출 금지 시행 1개월 전까지 일본 공사에게 알리시어, 일본의 상민들이 일체 준수하게 해주십시오.”

- ①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를 분석한다.
- ② 산미 증식 계획의 실상을 조사한다.
- ③ 조일 통상 장정 체결의 영향을 살펴본다.
- ④ 토지 조사 사업의 추진 과정을 파악한다.
- ⑤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한 목적을 알아본다.

정답> ③

'이달 20일,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큰 수해를 당하여 조만간 여러 곡식의 피해가 클 듯한데, 콩 등은 더욱 심하여 모두 흉작이 될 것이라고 고하고 있으니, 궁핍하여 식량난을 겪을 것이 장차 불을 보듯 흰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도내(道內)의 쌀과 콩 등의 곡물에 대해서는 내년 가을걷이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삼아 잠정적으로 유출을 금지하여 백성들의 식량 사정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 합니다. 바라건대 통촉하시어 유출 금지 시행 1개월 전까지 일본 공사에게 알리시어, 일본의 상민들이 일체 준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함경도 관찰사'라는 말과 '쌀과 콩 등의 곡물을 잠정적으로 유출을 금지'한다는 문장에서 주어진 자료는 함경도 관찰사에 의해 고종 26년인 1889년에 내려진 '방곡령'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방곡령 시행에 대한 규정은 고종 20년인 1883년 7월 일본과 체결한 조일 통상 장정에 명시되었다(제37관).

오답 해설>

- ①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된 것은 1905년 7월의 일이다 (~1909.12).
- ② 산미 증식 계획이 세워진 것은 1920년의 일이다(~1934).
- ④ 토지 조사 사업이 추진된 것은 1910년의 일이다(~1918, 1912년 8월 토지 조사령이 공포).
- ⑤ 양지아문을 설치한 것은 1898년이고, 이를 혁파하고 지계아문을 설치한 것은 1901년의 일이다(~1904).

[35 ~ 36]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제6도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중에서 하도(下圖)는 이(理)와 기(氣)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 예를 들면 사단(四端)의 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니, 본래 순선(純善)하여 악이 없으나, 반드시 이의 발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기에 가려진 연후(連後)야 선하지 않게 됩니다.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타는 것이니, 역시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만약 기가 발하는 것이 절도에 맞지 않으면 그 이를 멀하게 되어 악이 됩니다.

(나) 유·불·도 삼교(三教)는 각자 업(業)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으니, 섞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수신은 다음 생을 위한 바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날에 힘쓸 일입니다. 오늘날은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저 불씨(佛氏)는 사람이 사악한지 정의로운지 올바른지 그른지는 가리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부처에게 오는 자는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비록 열 가지의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일지라도 부처에게 귀의하면 화를 면하게 되고, 아무리 도가 높은 선비일지라도 부처에게 귀의하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가령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올바른 도리가 아니므로 징계해야 할 것이다.

(라)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문제에 관해 개량하고 구신(求新)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결코 흥왕할 수 없으리라. …… 소위 3대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는 유교파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 측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하나는 열국을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바꾸려는 주의를 따르지 않고, “내가 학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나를 찾아야 한다.”라는 주의를 고수한 것이다. 하나는 우리 한국의 유가는 간단하고 절실한 가르침을 요구하지 않고 지리하고 한만(汗漫)한 공부만 해 온 것이다.

(가) '제6도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중에서 하도(下圖)는 이(理)와 기(氣)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 예를 들면 사단(四端)의 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니, 본래 순선(純善)하여 악이 없으나, 반드시 이의 발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기에 가려진 연후(連後)야 선하지 않게 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타는 것이니, 역시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만약 기가 발하는 것이 절도에 맞지 않으면 그 이를 멀하게 되어 악이 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나 '제6도 심통성정도 중에서 하도'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는 퇴계 이황(1501~1570)의 『성학십도』와 관련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1568, 선조 원년). 그리고 사단과 칠정에 관한 서술* 역시 퇴계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기호발설은 이(理)와 기(氣)의 차이점을 중시한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관점에서 전개한 유학의 심성론으로, 인간의 성정(性情)에 속하는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理)와 기(氣)의 발현으로 구분하는 (이황의) 주리론적 학설이다. 이황은 이기호발설을 통해 기(氣)에 대한 이(理)의 우위를 분명히 하고, 이로써 인간의 순수 심성의 발현인 사단을 소중히 해 인간의 선의지(善意志)와 이성을 지켜가려는 정신을 표현하였다.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이다(理乘之)'는 요지의 내용

**참고로 주어진 자료는 기대승의 반론["사단은 칠정의 선일변(善一邊)이므로 사단을 이발(理發)로, 칠정을 기발(氣發)로 대답시키는 것은 불가하며,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기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기겸발설(理氣兼發說) 주장]을 반영하여 이황이 자신의 이전 주장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황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이발(理發)의 주장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나) '유불도 삼교(三敎)는 각자 업(業)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으니, 섞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수신은 다음 생을 위한 바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날에 힘쓸 일입니다. 오늘날은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는 내용이 나와 있다.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점,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 등의 표현 등에서 주어진 자료는 고려 시대의 문신 최승로(927~989)가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제20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982, 고려 성종 원년).

(다) '저 불씨(佛氏)는 사람이 사악한지 정의로운지 올바른지 그른지는 가리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부처에게 오는 자는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것은 비록 열 가지의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일지라도 부처에게 귀의하면 화를 면하게 되고, 아무리 도가 높은 선비일지라도 부처에게 귀의하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가령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올바른 도리가 아니므로 징계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불씨'라는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삼봉 정도전(1342~1398)이 저술한 『불씨잡변』(불교의 교리 비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394, 태조 3).

(라)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문제에 관해 개량하고 구신(求新)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결코 흥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소위 3대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는 유교파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 측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하나는 열국을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바꾸려는 주의를 따르지 않고, 내가 학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나를 찾아야 한다라는 주의를 고수한 것이다. 하나는 우리 한국의 유가는 간단하고 절실한 가르침을 요구하지 않고 지리하고 한만(汗漫)*한 공부만 해 온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유교에 3대 문제가 있다'와 '구신'이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는 백암 박은식(1895~1925)의 '유교구신론'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9.3).

*한만: 한가하고 느긋함.

35 - 고려와 조선 시대의 유불 관련 자료[저서]

35. (가)~(라)를 작성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나) - (다) - (가) - (라)
-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④

이상을 작성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다)-(가)-(라)'이 된다.

36 - 최승로와 백암 박은식

36. (가)~(라)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 -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해 사서(四書)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고, 노장사상 등을 도입해 유학의 실리적 측면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ㄴ. (나) - 예기(禮記) 중 월령(月令)에 근거하여 불교 행사를 줄이고 정사를 행하도록 촉구하며 불교적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ㄷ. (다) -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제자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유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ㄹ. (라) - 양명학을 통해서 기존의 유학을 개선하려 하였고, 실학의 실천 정신을 받아들여 구국 운동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ㄱ.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해 사서(四書)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고, 노장사상 등을 도입해 유학의 실리적 측면을 강화하려고 한' 인물은 서계 박세당(1629~1703)이다(소론, 『사변록』). (가)를 작성한 인물은 퇴계 이항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박세당은 백후 윤희(1617~1680)(남인)처럼 교조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달리 말해 '유교 경전의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어 죽음을 당하였다.

*사문난적(斯文亂賊): '유교 교리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유교의 질서와 학문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자적 유교에 대한 교리를 다르게 해석했던 선비(학자)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ㄴ. 예기(禮記) 중 월령(月令)에 근거하여 불교 행사를 줄이고 정사를 행하도록 촉구하며 불교적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변화시키고자 한' 인물은 고려의 문신 최승로(927~989)이다. (나)를 작성한 인물은 최승로이므로, 적절한 탐구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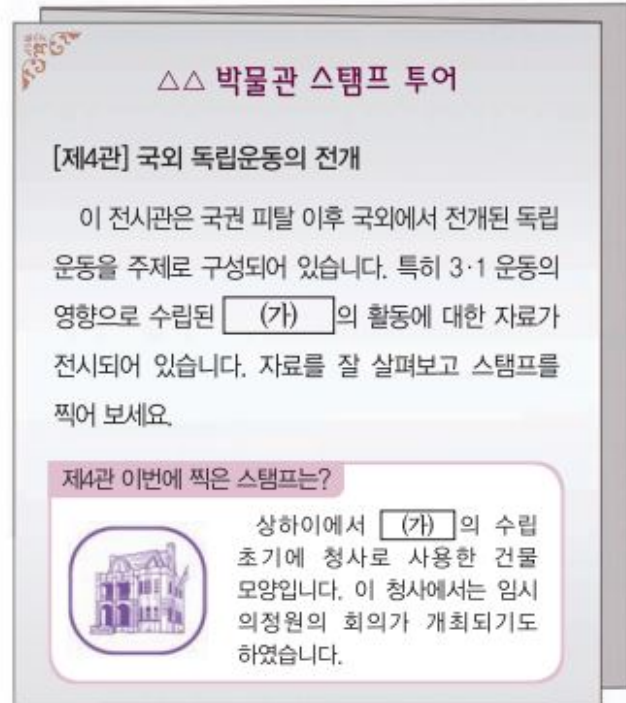
ㄷ. 기대승(1527~1572)과의 논쟁을 통해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제자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유학의 발전에 영향을 준' 인물은 퇴계 이항(1501~1570)이다. (다)를 작성한 인물은 삼봉 정도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ㄹ. 양명학을 통해서 기존의 유학을 개선하려 하였고, 실학의 실천 정신을 받아들여 구국 운동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인물은 백암 박은식(1895~1925)이다. (라)를 작성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이므로, 적절한 탐구 내용이다. 참고로 박은식은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왕양명실기』를 저술하기도 하였다(1910).

이상에서 적절한 탐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ㄴ과 ㄹ'이다.

37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37.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민족 교육을 위해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ㄷ. 외교 독립 활동을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ㄹ.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박물관 스탬프 투어', '[제4관]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라는 제목 아래 '이 전시관은 국권 피탈 이후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3·1 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가)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잘 살펴보고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4관 이번에 찍는 스탬프는?'에 '상하이에서 (가)의 수립 초기에 청사로 사용한 건물 모양입니다. 이 청사에서는 임시 의정원의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을 알 수 있다(1919.4.11).

ㄱ. 민족 교육을 위해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한 단체는 신민회이다(1908.9).

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한 단체는 신간회이다(192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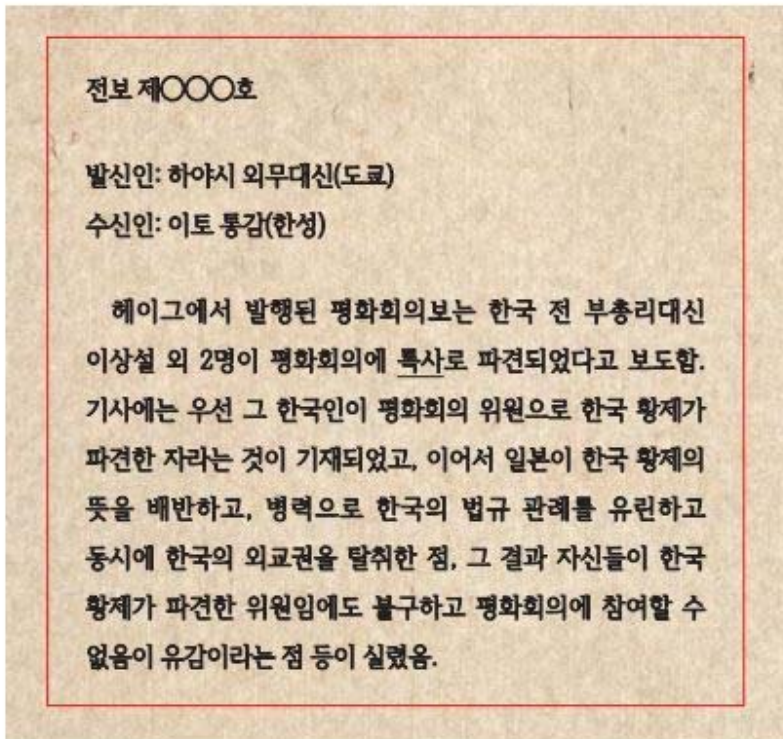
ㄷ. 외교 독립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의해 미국에) 구미 위원부가 설치된 것은 1919년 9월의 일이다.

ㄹ.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한 것은 1919년 9월의 일이다(1919.9.23).

이상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에 속하는 것은, 'ㄷ과 ㄹ'이다.

38 - 을사늑약(헤이그 특사)

38. 밑줄 그은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 ②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 ③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 ④ 조선 태형령이 제정되었다.
- ⑤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정답> ③

'전보 제○○○호'라는 제목 아래 발신인으로 하야시 외무대신(도쿄)가, 수신인으로 이토 통감(한성)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전보 내용으로 '헤이그에서 발행된 평화회의보는 한국 전 부총리대신 이상설 외 2명이 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고 보도함. 기사에는 우선 그 한국인이 평화회의의 위원으로 한국 황제가 파견한 자라는 것이 기재되었고, 이어서 일본이 한국 황제의 뜻을 배반하고, 병력으로 한국의 법규 관례를 유린하고 동시에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한 점, 그 결과 자신들이 한국 황제가 파견한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이 유감이라는 점 등이 실렸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특사'는 헤이그 특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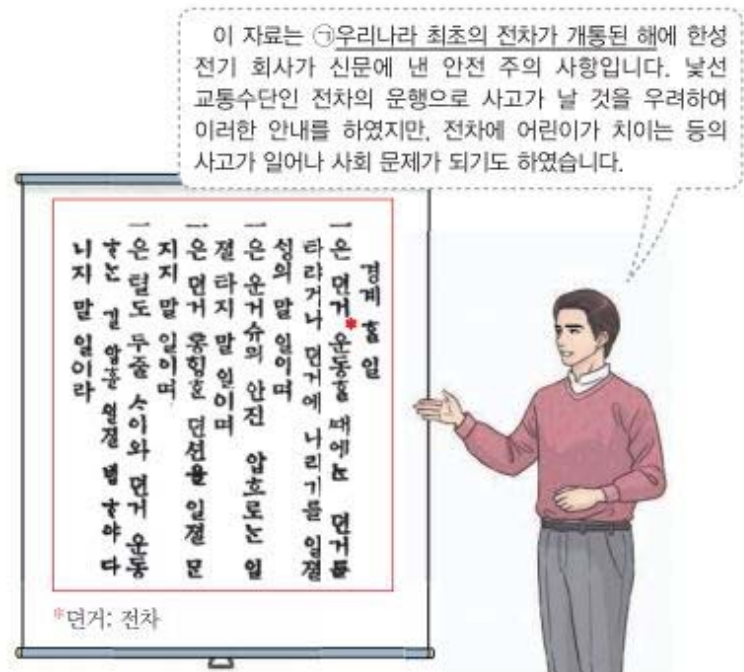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비밀리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1905년 11월 17일에 강요된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 때문이었다(1907.4).

오답 해설>

- ① 임오군란이 일어난 것은 고종 19년인 1882년 6월의 일이다.
- ② 집강소가 설치된 것은 고종 31년인 1894년 7월의 일이다(동학 농민 운동).
- ④ 조선 태형령이 제정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1920.3).
- ⑤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것은 1907년 8월 1일의 일이다 [한일 신탁약(정미 7조약) 체결 시의 비밀 각서]

39 - 대한국 국제 반포

39. 밑줄 그은 ㉠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북학의를 저술하는 학자
- ②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황제
- ③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영국군
- ④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관리
- ⑤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평양 관민

정답> ②

'이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된 해에 한성 전기 회사가 신문에 낸 안전 주의 사항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낮선 교통수단인 전차의 운행으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안내를 하였지만, 전차에 어린이가 치이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된 해'는 대한 제국 광무 3년(고종 36)인 1899년의 일이다(1899.5).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것은 1899년 8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북학의가 [초정 박제가(1750~1805)에 의해] 저술된 것은 조선 정조 2년인 1778년의 일이다.
- ③ 거문도를 영국군이 불법 점령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
- ④ 집현전이 설치(사실은 개편)된 것은 조선 세종 2년(1420)의 일이다(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세조 2년인 1456년에 폐지).
- ⑤ [미국 상선(商船)]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관민에 의해 불태워진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7월의 일이다.

40 - 보안회(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

40.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송수만 등 체포 경위 보고

송수만은 보안회라는 것을 설립하여 그 회장이 됨. 종로 백목전 도가에서 날마다 회원을 모집하여 집회·논의하고 있는 자임. 오늘 정부와 순사 두 사람이 출장하여 송수만에게 공사관으로 동행하기를 요구하였음. …… 이때 회원과 인민들 약 200명 정도가 떠들썩하게 모여들어 송수만의 동행을 막음.

- ① 시전 상인의 상권 수호 운동
- ② 급진 개화파의 정치 개혁 운동
- ③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 ④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
- ⑤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

정답> ⑤
 '송수만 등 체포 경위 보고'라는 제목 아래 '송수만은 보안회라는 것을 설립하여 그 회장이 됨. 종로 백목전 도가에서 날마다 회원을 모집하여 집회·논의하고 있는 자임. 오늘 정부와 순사 두 사람이 출장하여 송수만에게 공사관으로 동행하기를 요구하였음. 이때 회원과 인민들 약 200명 정도가 떠들썩하게 모여들어 송수만의 동행을 막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송수만(1857~?)'이라는 인물, '보안회'라는 명칭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1904.7).

오답 해설>
 ① 시전 상인[황국 중앙 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이 벌어진 것은 광무 2년인 1898년 7월의 일이다.
 ② 급진 개화파의 정치 개혁 운동이 벌어진 것은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의 일이다(갑신정변).
 ③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이 (경남 진주에서) 펼쳐진 것은 1923년 4월의 일이다(1923.4.24).
 ④ (동아일보 주도로)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이 펼쳐진 것은 1931년의 일이다(~1934).

41 -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41. (가), (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제1조 조선에 있어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9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제2조 총장은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아 경성 제국 대학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을 통독(統督)한다.
 제4조 경성 제국 대학에 예과를 둔다.

- ① 육영 공원이 설립되었다.
- ② 국문 연구소가 설치되었다.
- ③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 ④ 국민 교육 현장이 발표되었다.
- 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정답> ⑤
 (가)에 제1조로 '조선에 있어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가, 제9조로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는 제1차 조선 교육령임을 알 수 있다(1911.8).
 (나)에는 제2조로 '총장은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아 경성 제국 대학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을 통독(統督)한다'가, 제4조로 '경성 제국 대학에 예과를 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나)'는 경성 제국 대학을 설치하기로 한 일제(당시 일제 정부가 결정)의 '경성제국대학령'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23.5). 이에 따라 1924년 서울[당시 경성]에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때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가 설치되었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결성된 것은 1922년 11월의 일이다. 창립총회가 열린 것은 이듬해인 1923년 3월의 일이다(1923.3.29).

오답 해설>
 ① 육영 공원이 설립된 것은 고종 23년인 1886년 9월의 일이다.
 ②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국문 연구소가 설치된 것은 1907년 7월의 일이다.
 ③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2월의 일이다.
 ④ (교육의 지표를 제시한) 국민 교육 현장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년 12월의 일이다(1968.12.5).

42 - 6·10 만세 운동

42.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2점]

판결문

피고인: 이선호 외 10명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들은 이왕(李王) 전하 국장 의식을 거행할 즈음, 이를 봉송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다수 조선인이 경성부로 모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불온 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국장 당일 군중 가운데 살포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쳐 조선 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고자 기도하였다.

- ①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② 북벽주의를 내세운 독립 의군부가 조직되었다.
- ③ 김광제 등의 발의로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 ④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담은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 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정답> ⑤

'판결문'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으로 '이선호 외 10명'이, 주문 *으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유로 '피고인들은 이왕(李王) 전하 국장 의식을 거행할 즈음, 이를 봉송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다수 조선인이 경성부로 모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불온 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국장 당일 군중 가운데 살포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쳐 조선 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고자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왕(李王) 전하 국장 의식'이라는 표현 **에서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사건은 1926년 6월 순종(재위 1907-1910, 제27대)***의 인산일에 일어난 '6·10 만세 운동'임을 알 수 있다.

*주문(主文): (재판에서) 판결의 결론 부분

**'이왕(李王)'은 일본 제국에서 사용되던 작위로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 체결(경술국치) 이후 대한 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왕공족으로 대우하면서 대한 제국 전 황제들에게 붙인 칭호이다. 특이한 점은 일본과는 다르게 소유하는 궁궐을 칭호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으로,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李太王)'으로, 순종은 '창덕궁 이왕'으로 호칭하였다(사실상 경멸조의 비칭). 1926년 6월 순종이 사망하면서 구 대한 제국의 황태자였던 의민태자('영친왕')가 창덕궁 이왕을 세습하였다.

***대한 제국 제2대 황제이기도 함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된 것은 1927년 2월의 일이다(1927.2.15). 6·10 만세 운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민족 유일당 운동).

오답 해설>

- ①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한 것은 1908년 1월의 일이다(13도 창의군은 1907년 12월 결성).
- ② 북벽주의를 내세운 (대한)독립 의군부가 조직된 것은 1912년 9월의 일이다(임병찬).
- ③ 김광제(1866~1920) 등의 발의로 (대구에서)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7년 2월의 일이다(~1908.7).
- ④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담은 척화비가 (종로와 전국 각지에) 건립된 것은 1871년(고종 8) 4월의 일이다(신미양요).

43 - 조선 의용대

43.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독립운동가

윤세주(1901~1942)
 ▶ 훈격: 건국훈장 독립장 ▶ 서훈 연도: 1982년

공훈록(요약)

경남 밀양 출생. 1919년 11월 만주에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국내에 들어온 그는 의열 투쟁을 계획하다 체포되어 수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인 (가)의 주요 간부로 활약하였다. 1942년 타이항산에서 전사하였다.

- ①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 ②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③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 ④ 도쿄에서 2·8 독립 선언을 계획하였다.
- ⑤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답> ③

'이달의 독립운동가'라는 제목 아래 윤세주(1901~1942)가 제시되어 있다. 공훈록(요약)에 '경남 밀양 출생. 1919년 11월 만주에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국내에 들어온 그는 의열 투쟁을 계획하다 체포되어 수년간 옥고를 치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후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인 (가)의 주요 간부로 활약하였다. 1942년 타이항산에서 전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은 조선 의용대이다(1938.10).

조선 의용대의 대원 일부가 1942년 5월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광복군 제1지대로 편성).

오답 해설>

- ① 홍범도(1868~1943)가 총사령관으로 활약한 군사 조직은 대한 독립군이다.
- ②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군사 조직은 조선 혁명군(총사령 양세봉)이다(1932.3-7).
- ④ 도쿄에서 2·8 독립 선언을 계획한 단체는 조선 청년 독립단이다. 최팔용, 서춘, 백관수 등 재일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하였다(1918.12).
- ⑤ (중국)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17년 7월의 일이다.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등 14인의 명의로 발표되었고, 주권 재민 사상을 담고 있다.

44 - 시인 윤동주

44.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도시사 대학에 있는 이 시비는 민족 문학가인 (가)을/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로 시작되는 그의 작품인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간도 출신인 그는 일본 유학 중 치안 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하였습니다.



- ① 조선상고사를 저술하였다.
- ②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 ③ 저항시 광야, 절정 등을 발표하였다.
- ④ 영화 아리랑의 제작과 감독을 맡았다.
- ⑤ 별 헤는 밤, 참회록 등의 시를 남겼다.

정답> ⑤

'(일본의) 도시사 대학에 있는 이 시비는 민족 문학가인 (가)을/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로 시작되는 그의 작품인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간도 출신인 그는 일본 유학 중 치안 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시인 윤동주(1917~1945)임을 알 수 있다. 유교 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다(1948).

윤동주 시인은 별 헤는 밤, 참회록 등의 시를 남겼다(유교 시집).

오답 해설>

- ① 조선상고사를 저술한 인물은 단재 신채호(1880~1936)이다(1931).
- ②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한 인물은 심훈(1901~1936)이다(1935, 동아일보). 심훈은 소설가이자 시인, 영화인이기도 하다. 저항시 '그날이 오면'이 유명하다.
- ③ 저항시 광야, 절정 등을 발표한 시인은 이육사(1904~1944, 본명 이월론)이다. 이육사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광야'는 암흑에 처한 우리 민족이 울분을 노래하고, 일제의 압박에 항거한 시이다.
- ④ 영화 아리랑의 제작과 감독을 맡은 인물은 나운규(1902~1937)이다(1926). 영화 아리랑은 민족의 슬픔과 애환을 담은 1926년의 최고의 흥행작이었다.

45 - 일제 강점기 말의 사실

45.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미국 공출제가 시행되었다.
- ㄴ.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 ㄷ.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 ㄹ.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상세 정보에 '이 포스터는 국민 총력 조선 연맹에서 만든 것으로, 기름을 팔 각종 씨앗까지 모아서 내라고 독려하는 내용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민 총력 조선 연맹은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이 시기에 조직되어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는 데 앞장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한 것은 1938년 4월이고, 국민 총력 조선 연맹이 조직된 것은 1940년 10월의 일이다. 국민 총력 조선 연맹은 1938년 7월에 결성된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만든 후신이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이 시기'는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1937.7) 결국 패망한 일제 강점기 말(의 시기)을/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 ㄱ. 미국 공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41년부터이다. 일제(조선총독부)는 1939년 말에 조선미곡통제령, 조선미곡배급조령령을 공포하여 조선 쌀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출 및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41년 미곡년도부터 수이출 미곡만이 아니라 조선 내 소비에 대해서도 공출하면서 공출제가 본격화되었다. 미국 강제 공출이 시행된 것은 1944년 6월의 일이다
- ㄴ.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된 것은 1937년 10월 이후의 일이다.
- ㄷ.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실시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이른바 '허가제 회사령',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해당). 참고로 '허가제 회사령'은 1920년 4월에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 ㄹ.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6월의 일이다(1949.6.21). 참고로 농지 개혁법이 공포된 것은 1950년 3월이다(1950.3.10).

이상에서 일제 강점기 말에 해당하는 사실은, 'ㄱ과 ㄴ'이다.

46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4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본관(本官)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군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함.

제1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

(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 대표 70여 명으로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서 강력한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김구·김규식 등 9인을 위원회의 '장정위원'으로 선정하였다.

- ①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②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 ③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④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7원칙을 합의하였다.
- ⑤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였다.

정답> ③

(가)에 '본관(本官)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군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함. 제 1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명의로 발표된 이른바 '맥아더 포고령 1호'를 가리킨다(정식 명칭은 '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로 '포고령 1호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고도 함).

(나)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 대표 70여 명으로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서 강력한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김구·김규식 등 9인을 위원회의 장정위원으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모스크바 3국 회의의 결정에 반대하여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1945년 12월 28일의 일이다(~1946.2.8).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45년 12월 16일에서 28일까지이다.

오답 해설>

① (카이로 회담* 결과)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43년 12월 1일의 일이다. 선언문 중에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었다.

*카이로 회담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연합국 수뇌부의 회담이다. 두 차례 열렸는데 1차는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2차는 1943년 12월 2일에서 7일까지 열렸다. 특히 1차 회담 결과 동년 11월 27일 한국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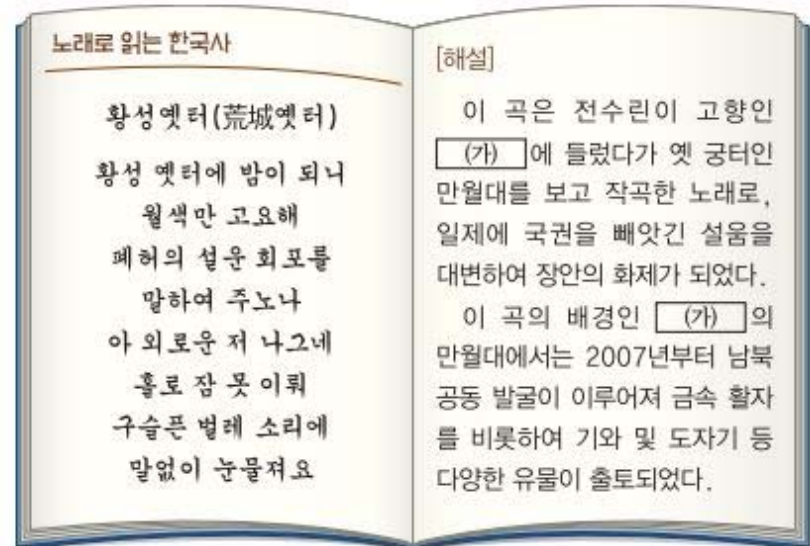
②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된 것은 1944년 8월의 일이다 (1944.8.10~1945.11.12).

④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7원칙을 합의한 것은 1946년 10월 7일의 일이다.

⑤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한 것은 1947년 11월 14일의 일이다.

47 - 개성의 역사적 사실

47.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조선 형평사 창립총회가 개최된 곳이다.
- ② 동학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화약이 체결된 곳이다.
- ③ 서희가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확보한 곳이다.
- ④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천도하여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 ⑤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의 첫 번째 정전 회담이 열린 곳이다.

정답> ⑤

'노래로 읽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황성옛터(荒城옛터)'라는 노래의 노랫말이 나와 있다. 해설로 '이 곡은 전수린이 고향인 (가)에 들렀다가 옛 궁터인 만월대를 보고 작곡한 노래로,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설움을 대변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 곡의 배경인 (가)의 만월대에서는 2007년부터 남북 공동 발굴이 이루어져 금속 활자를 비롯하여 기와 및 도자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는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성(개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개성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의 첫 번째 정전 회담이 열린 곳이다(1951.7.11, 개성시 고려동 내봉장). 참고로 동년 10월 26일 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바뀌었다.

오답 해설>

① 조선 형평사 창립총회가 개최된 곳은 경남 진주이다 (1923.4.24).

② 동학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화약이 체결된 곳은 전북 전주이다(1894.5.8, 전주 화약).

③ 서희가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확보한 곳은 강동 6주로, 현재의 평안도 지역(압록강 하류와 청천강의 중간 지역)이다 (993, 성종 12).

④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천도하여 도읍으로 삼은 곳은 평양이다 (427, 장수왕 15).

48 - 4·19 혁명

48.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3·15 의거 기념 답사 안내 ●

우리 문화원에서는 (가)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정 선거에 맞서 일어난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의지를 되새기는 이번 답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월 ○○일 09:00~17:30
 ◆ 답사 경로

◆ 주관: □□ 문화원

- ①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 ②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 ④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⑤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며 호헌 철폐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정답> ②

'3·15 의거 기념 답사 안내'라는 제목 아래 '우리 문화원에서는 (가)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정 선거에 맞서 일어난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의지를 되새기는 이번 답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답사 경로로 '3·15 의거 발원지 → 3·15 의거 기념탑 →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 → 마산의료원(구 도립마산병원) →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는 1960년 4월에 일어난 '4·19 혁명'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3·15 의거가 일어난 곳은 경남 마산).

4·19 혁명 결과 이승만(1875~1965)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1960.4.26).

오답 해설>

①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가 주도한 것은 박정희(1917~1979)의 '3선 개헌 반대 투쟁'이다. 투쟁 위원회가 발기한 것은 1969년 7월이고,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1969년 9월의 일이다(1969.9.14).*

*1969년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던 야당(신민회) 의원들을 피하여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계 의원 122명이 모여 기명 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찬성 122표, 반대 0표로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그 후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 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으며, 10월 21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③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은 1980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④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민주화 운동 역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

⑤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며 호헌 철폐 등의 구호를 내세운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49 -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

49. 다음 판결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김○○ 씨가 모 다방에서 동석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물가 조정한다고 하면서 물가가 오르기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교수를 잡아 조사를 하다 죽이고서는 자살하였다고 거짓 발표하였다." 등의 발언을 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사상계 전 대표 장준하, 백범 사상 연구소 소장 백기완이 함석헌, 계훈제 등과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에 대해 논의하고 긴급조치를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 12년을 선고받았다.

- ①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 ② 농촌 근대화를 표방하는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 ③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금융 거래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었다.
- ⑤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정답> ②

위의 자료에 '김○○ 씨가 모 다방에서 동석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물가 조정한다고 하면서 물가가 오르기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교수를 잡아 조사를 하다 죽이고서는 자살하였다고 거짓 발표하였다 등의 발언을 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중앙정보부'(1961.6~1980.12)가 나오고 모 대학교수*를 죽이고 자살하였다고 거짓 발표하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주어진 자료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1973년 10월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최종길(1931~1973) 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가리킨다.

아래의 자료에는 '사상계 전 대표 장준하, 백범 사상 연구소 소장 백기완이 함석헌, 계훈제 등과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에 대해 논의하고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 1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73년 12월에 시작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으로 장준하, 백기완 등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 12년을 선고받은 것은 1974년 1월의 일이다(1974.1.15). 따라서 이 역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농촌 근대화를 표방하는 새마을 운동이 추진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4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일이다(2002.5.31~6.30).

③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말과 김대중 정부 시기의 초이다(1998.1~4, 19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 출범).

④ 금융 거래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금융 실명제가 시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이다(1993.8.12).

⑤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이다(2007.4~6). 참고로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3월로 한미 FTA (체결·비준) 반대 운동은 넓게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50 - 노무현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50.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수행 과제 안내문

- ◆ 과제: (가) 정부의 통일 노력 소개하기
- ◆ 안내: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한 (가) 정부의 통일 노력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봅시다.
- ◆ 주의 사항: 사진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집할 것

(예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경의선 철도를 시험 운행하였다.

- ① 남북 기본 합의를 채택하였다.
-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③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④ 남북 조절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하였다.

- 이 상 -

정답> ③
 '수행 과제 안내문'이라는 제목 아래 과제로 '(가) 정부의 통일 노력 소개하기'가 나와 있다. 이어 안내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한 (가) 정부의 통일 노력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봅시다'가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으로 '사진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집할 것'이 나와 있다. 예시로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경의선 철도를 시험 운행하였다'는 것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노무현 정부 시기, 2003.2~2008.2).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된 것은 2007년 10월의 일이고, 이때 10·4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참고로 경의선(남북)철도가(연결 구간*에서) 시험 운행된 것은 2007년 5월의 일이다(2007.5.17).

*당시 남측은 문산역에서 개성역 구간을, 북측은 금강산청년역에서 제진역 구간을 각 연결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로,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13).
-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 역시 노태우 정부 시기로, 1991년 9월의 일이다(1991.9.18).
- ④ 남북 조절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로, 1972년 7월의 일이다(7·4 남북 공동 성명).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로,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2).